“불교미술 총제적 이해 도울 뼈대 만들겠다”

인터뷰

〈한국불교미술개론〉 개정판 발간한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



20년 만에 개론서 개정판 발간
法數 개념, 불복장 등 내용 추가
도판사진도 전부 컬러로 리뉴얼
현재 ‘불교조각사’ 집필 매진 중
‘불교미술사’ 계획…개론 집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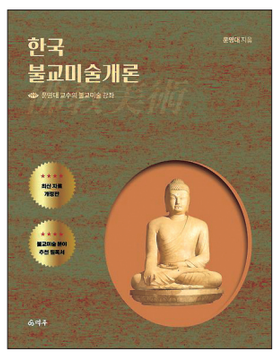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는 ‘개척자’다. 척박했던 ‘불교미술’이란 외길을 오롯이 걸었고, 그 고된 길을 걸으면서 후대를 위한 수많은 이정표를 남겼다. 작금의 불교미술사학이 현재와 같은 체계를 잡기까지는 문명대 명예교수의 공이 적지 않다.

그만큼 문 소장이 보인 연구 성과는 가히 방대하다. 불교미술 관련 저서만 50여 권, 논문만 300여 편에 달한다. 간다라·실크로드 해외 발굴조사 활로를 연 것도 문명대 명예교수다.

이제는 쉴 법도 하지만, 문명대 명예교수는 팔십이 넘은 노구에도 저서 집필에 여념이 없다. 최근에도 〈한국불교미술개론〉을 세상에 내놨다. 이 책은 1980년 편찬한 〈불교미술개론〉과 이를 수정·보완한 〈한국불교미술의 형식〉을 새로 수정해 간행한 것이다. 거의 20년 만에 리뉴얼한 것이다.

문명대 명예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학생들이 오래돼서 절판된 개론서를 복사해서 보고 있다’며 여러 군데에서 개정판 발간 요청이 있어왔다. 그간 시간이 안돼 미뤄 오던 것을 올해 초부터 후학들과 집필



과 편집을 진행해 발간하게 됐다”고 집필 계기를 밝혔다. 이어 “〈불교미술개론〉과 〈한국불교미술의 형식〉의 뼈대는 그대로 두고 내용을 상당히 보완하려 했지만, 시간관계상 의도대로 다 되지는 못했다. 이는 앞으로 수정·보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개론서인 만큼 이 책은 불교미술의 이해부터 건축·불상·불화·공예까지 한국의 불교미술 전반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도판 사진들은 전부 컬러로 리뉴얼했으며, 불복장과 같이 새로운 연구 성과들도 반영했다. 불교의 수(數) 개념도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다. 또한 60여 개의 각주와 190여 개의 도판 리스트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

현재, 문명대 명예교수는 불교조각의 역사를 망라한 ‘불교조각사’ 집필에 매진 중이다. 이는 1977년 발간했던 〈한국조각사〉를 바탕으로 한반도 불교조각의 흐름을 한눈에 조망해내는 저작이 될 전망이다.

문명대 명예교수는 “〈한국조각사〉는 당시 연구가 미진해서 보완할 부분이 많다. 실제 당시에는 통일신라까지만 기술했다”면서 “40년이 지나 후대 연구들이 활발히 이뤄져 계속 수정이 이뤄지고 있다. 벌써 다섯 차례 수정했는데 아직도 보완할 것이 계속 나온다”고 말했다.

이같은 문명대 명예교수의 저작 작업은 한국불교미술의 이론적 뼈대를 형성하는 일이기도 하다. 지난 2021년 발간한 한국불교회화사 개론서인 〈한국불교회화사〉와 올해 발간한 〈한국불교미술개론〉, 발간 추진 중인 〈한국불교조각사〉 〈한국불교미술사〉까지 나오면 한국불교미술 전반에 걸친 개론서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문명대 명예교수는 “이번에 발간한 〈한국불교미술개론〉을 비롯해 회화, 조각, 미술사로 이어지는 개론서들을 집필하는 것은 후학과 대중들이 쉽게 불교미술을 이해하고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불교미술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뼈대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14회 반야학술상에 권오민 명예교수

경량부 연구 업적 높이 평가
10월 6일 반야암에서 시상식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스님)이 주관하는 제14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권오민 경상국립대 명예교수〈사진〉가 선정됐다.

권오민 명예교수는 ‘상좌 슈리라타의 경량부 사상’(2019)과 ‘경부비바사’ 관련의 연구물 시리즈와 저서 등 경량부 사상에 관한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왔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학자로서의 연구업적은 물론 불교교육과 불교학 발전을 위한 학술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권오민 교수는 동국대 불교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6년부터 1988년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강사, 1988년부터 2022년까지 경상국립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1989년 ‘구사론’ 상의 경량부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30여 년에 걸쳐 경량부의 일실문헌인 상좌 슈리라타(勝授)의 ‘경부비바사(經部毘婆沙)’를 연구 집성했으며, 현재 이를 바탕으로 ‘구사론’과 ‘성유식론’을 다시 읽으며 불교 철학의 근본적 문제를 밝히는 집필과 강의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저서는 일련의 ‘경부비바사’ 관련 연구물 시리즈인 ‘상좌 슈리라타와 경량부’(2013년도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상좌 슈리라타의 경량부 사상’(2019년도 학술부문 세종도서), ‘상좌 슈리라타의 경부비사사 산일문 집성’(2022년도 학술부문 세종도서) 등이 있다. 청송학술상(2007년), 행원문화상 역경부문(2011년), 한국불교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한국불교학술상(2013년), 대정학술상(2016년), 원효학술상 대상(2020년) 등을 수상했다.

시상식 및 수상기념 강연은 오는 10월 6일 오후 1시 통도사 반야암에서 열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22회 유심상에 신철규·김보람 등 선정

8월 10일 만해마을서 시상식



신철규 시인



김보람 시조시인



최은미 소설가



조연정 평론가

만해 한용운 스님의 문학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유심상의 제22회 수상자로 신철규 시인, 김보람 시조시인, 최은미 소설가, 조연정 평론가가 각각 선정됐다.

제22회 유심상 심사위원회는 시 부문 수상자 신철규 시인에 대해 “서정시의 퇴적지층을 이어가면서도 경계선 위의 떨림과 파문, 그리고 망설임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시조 부문 김보람 시인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조 문법을 경쾌하게 넘어서는 새로운 발성과 발화가 돋보인” 선정 이유를 밝혔다.

소설 부문 최은미 소설가는 “다시 시작된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와 거기에 따른 윤리적 질문”을 탁월하게 형상화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조연정 평론가는 저서 〈장전된 시간〉을 통해 “차분하고 정갈한 동시에 설득력 있는 비평적 논의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유심상을 주관하는 (재)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2003년도부터 시행해 온 ‘유심작품상’을 올해부터 ‘유심상’으로 변경하고, 각 부문별로 상금 2000만원을 수여한다.

제22회 유심상 시상식은 2024년 8월 10일 오후 6시 30분 강원도 인제군 소재 동국대 만해마을 문인의집 대강당에서 열렸다.

신중일 기자

21년 이어진 울릉도 명품축제 ‘회당문화축제’

7월 24일 ‘독도아리랑 콘서트’
김경호 등 공연에 저동항 들썩



7월 24일 울릉도 저동항에서 열린 회당문화축제 하이라이트 독도아리랑 콘서트에서 김경호 밴드가 공연을 펼치고 있다.

진각종이 진각종조 성지인 울릉도에서 매년 개최하는 2024 회당문화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독도아리랑 콘서트가 7월 24일 저동항 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울릉도 독도팝스오케스트라의 무대로 막을 연 독도아리랑 콘서트는 종립 진선여자고등학교 댄스동아리 ‘걸스온탑’이 역동적인 K-POP댄스 무대를 선보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콘서트의 대미를 장식한 무대는 2015년 회당문화축제 이후 다시 울릉도를 찾은 김경호 밴드다. 김경호 밴드는 ‘사랑했지만’,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다시, Fly’, ‘아리랑 목동(with 광개토)’, ‘퀸 메들리’, ‘락앤롤’, ‘금지된 사랑’,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봐’, ‘그대에게’ 등의 노래와 불꽃놀이 피날레로 50여 분간 관객들과 호흡하며 더위를 날려 보냈다.

콘서트에 앞서 통리원장 도진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21번째 찾아온 회당문화축제는 울릉도를 사랑하며, 울릉도민과 함께하는 축제이자 진호국가불사로 우리나라 독도를 수호하는 명품축제”라며 “조만간 진각종이 울릉도 사동에 문화와 명상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되면 울릉군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24 회당문화축제’는 7월 22일과 23일 도동항 소공원과 남양해수풀장에서 각각 버스킹 ‘울릉아리랑 남(양)도(동) 별곡’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섬 내 작은 마을을 찾아가는 공연 나눔 버스킹은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 김나린, 컨트리음악밴드 더 웜스, 비로자나청소년협회원 김미연 등이 무대를 선사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버스킹에 앞서 회당문화축제 자원봉사단이 진행하는 단주 만들기, 슈링클 키링, 천연비누, 모루인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마당이 펼쳐져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신중일 기자

“소원 성취”, 사경 독송 공덕

“만일 어떤 사람이 경전을 베껴 쓴다면(寫經) 이것은 곧 부처님 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받게 되느니라.” (대방광불화엄경)

민족사 사경 시리즈의 특징

- 한 권 속에 번역(한글), 원문(한문), 한자 독음이 붙어 있어서 사경과 독송이 동시에 가능!
- 사경의 방법과 목적 등 자세한 안내가 있어 혼자 사경하는 불자들의 길잡이가 됨!
- 책장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본되어 사경과 독송하기 매우 편함!



1 금강반야바라밀경 (한글)
지혜 성취 기도
8,500원



2 금강반야바라밀경 (한문)
지혜 성취 기도
8,000원



3 아미타경 (한글·한문)
극락왕생 기도
7,500원



4 관세음보살보문품 (한글·한문)
고난 소멸 기도
7,500원



5 부모은중경 (한글·한문)
효행 기도
8,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